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08-2009 Annual Report



동아시아연구소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Contents

연구소 소개	3
소장 인사말	4
프로그램 소개	6
1. 국제 학술대회	9
2. 대학원 개설	19
3. 학술교류협정(MOU) 및 방문학자	22
4. 정기 학술 토론회	23
5. 학술연구 활동 및 성과	24
6. 아카이브	28
7. 사회화 사업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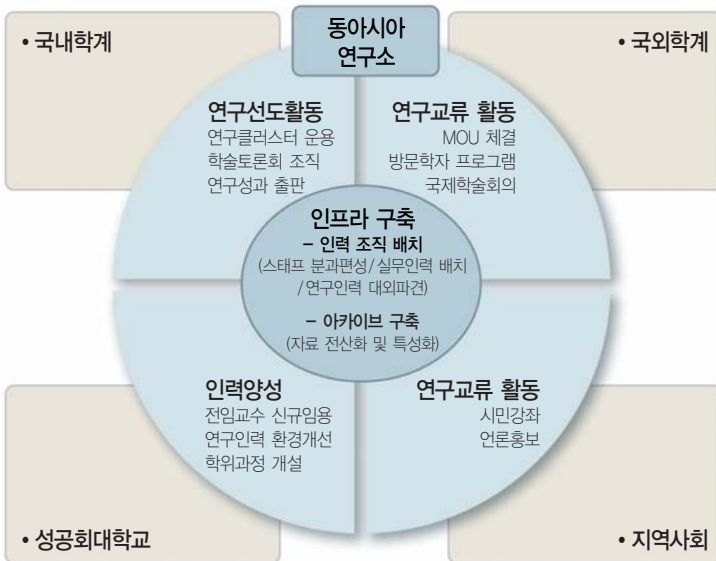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는 아제적 지식·문화의 공유와 생산을 통해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우리 안의 아시아와 우리 밖의 아시아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상을 그려나가며 아시아 평화적 공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아제적(亞際的 Inter-Asia) 지식·문화 생산의 거점이다.

동아시아연구소는 2003년 정식 개소한 이래 아시아의 '문화적 구성' 과정에 주목하여 문화연구와 지역연구의 생산적인 결합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의 실제적인 대중적 문화교통 과정에 근거하여 문화냉전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로서의 아시아: 사상·제도·일상에서 아시아를 재구성하기>를 아젠다로 '인문한국' 사업이라는 장기적 학술연구기획에 돌입, 역사적 현실적 아시아를 재구성하고 대안적 아시아 지역화의 문화경로를 열어가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소는 ① 아시아를 다층적·다면적인 '관계상'으로 파악하고, ② 아시아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구성해가는 '문화'에 주목하며, ③ '문화'를 사상·제도·일상이라는 세 개의 층위에서 파악하여 다원·평등한 새로운 아시아의 관계상을 모색하는 지역문화연구의 선도적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두 번째 연차보고서를 펴내며..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가 두 번째 연간활동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우리 연구소는 아제적(亞際的 Inter-Asia) 지식·문화 생산을 통해 ‘문화로서의 아시아’를 사상·제도·일상이라는 중층적 구조 속에서 역동적으로 구성하는 원대한 작업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아시아 문화정치학을 우리 연구소가 지향하는 실천적 아카데미즘의 구체적 내용으로 정립하고자 각고의 고민이 상호박투하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학문적 지향을 아시아 문화정치학으로 정립해나가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연구소는 체계적이고 안정된 연구지반을 형성해나가는 가운데 연구아젠다를 실제 연구클러스터의 구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진력해왔습니다. 연구진의 재편이 있었고, 전임트랙의 연구진의 구성과 전담실무역량의 안정적 배치 속에서 내부 워크숍을 통해 연구의 방향타를 재점검하고 상호 연구고민이 박투하는 가운데 사상·제도의 경로들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소의 성립과 초기발전을 이끌어온 기초인문학연구사업이 종료되면서 우리의 연구는 인문학국사업으로 집중되었고, 연구아젠다와 관련한 집담회, 국제회의(SPICES 2009), 해외석학초청강연회, 내부 연구진 워크숍, 연대활동, 사회화사업 등이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테디스(Inter-Asia Cultural Studies)의 주축들과 추진중인 Joint MA Ph. D 과정은 인터아시아 유스 캠프(Inter-Asia Youth Camp, Summer School)와 함께 차세대 학문주체들을 지역적으로 구성해가는 경로를 모색하는 교육과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여는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Agency, Activism, Alternatives’를 주제로 지난 폐창회의에 이어 서울에서 조직한 열린 ‘SPICES 2009’는 오리엔탈리즘과 냉전의식을 넘어서고자 했던 아시아문화정치학에 대한 집요한 고민의 응결된 집점들이 내뿜는 치열한 삶의 향내들, 문화적 표증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집담회와 강연회를 연구클러스터 중심과 현안 주제별로 경로를

만들고 집중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우리 연구소가 가장 역점을 두는 핵심사업으로서 그를 통한 제출되는 학술성과들은 아시아에서 지역주의 사상연쇄와 근대적 국민국가 형성과정 중에 문화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많은 주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시아를 문화연구와 지역연구가 절합된 아시아 문화정치학의 학적 대상으로 성찰하는 논의들은 우리 연구소의 정체성 형성을 추동하고, 그 존재 의미를 밝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연차보고서는 학문의 제도화, 연구성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인터아시아적인 지식·문화 생산방식의 세분화라는 문제를 선명하게 남기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Inter Asia Cultural Studies Consortium Meeting, The 1st Inter-Asia Cultural Studies Society Summer Camp(the Title: "Imagining 'Inter-Asian-ness' beyond Neo-liberalism"), 서울·상해 포럼 등 많은 국제회의들, 제1호와 제2호 저널 및 아시아문화연구총서 등의 출판사업, 공간활용형 아카이브(On-Line Archive) 작업, 구로 우등불 공연예술놀이터 및 시민강좌 등 사회화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연구진과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공동 지식문화생산작업의 빛나는 성과들이 생산되어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문화정치학의 정립은 결코 간단한 과정이 아니며, 우리 안의 아시아와 우리 밖의 아시아라는 경계인식의 극복 속에 만들어지는 진정한 동보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하나 구축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차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현단계에 있는 그대로 객관화하니, 부디 아낌없는 격려, 기탄없는 비판과 제언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길찾기에 서슴없이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12.31 세모에

동아시아연구소장 백 원 담 白元淡

프로그램 소개

1. 국제 학술대회

동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문화연구를 아제적(inter-Asia)이고 국제적인 수준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학술적 교류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동북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 학자들과의 교류의 장을 넓힌 Spices 컨퍼런스는 2009년 11월에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했으며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역사·문화연구자들이 함께 하는 비판적 학술토론의 장이 되었다. 또 Inter Asia 여름학교는 아시아 문화연구 과정 개설과 더불어 그 국제적 학제(學制) 기반 및 연구 콘텐츠의 내실 확보를 위해 현재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그 외, 한중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하였고 한국-타이완 역사비교연구 워크숍을 개최하여 중국 및 타이완 학자들과의 긴밀한 교류를 실행하였다. 더불어, 동아시아 연구소의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인 기초연구 사업 <동아시아에서 문화의 생산과 조절에 관한 비판적 연구>의 일환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모두 동시대 아시아의 문화 교통의 역사적, 현재적 양상과 그 의미를 성찰하는 의미있는 기회였다.

2. 대학원 개설

동아시아연구소는 2009년 한 해동안 아시아 문화연구 과정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아시아 문화연구의 진지로서 연구작업의 확대재산을 위해 차세대 육성을 절감하는 바, 연구소 주도로 학내 아시아관련 학과와 연구소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일반대학원 아시아문화연구과정 설치를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아시아의 주요 문화연구 중심대학과 연구소들이 추동하는 인터아시아 학술협력 협정(Inter-Asia Academic Cooperation Agreement)에 조인하고 인터아시아 문화연구 공동 박사학위과정(Inter Asia Cultural Studies Joint PhD Course) 과정의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국내외 컨소시엄 기관은 공동학점 부여, 공동학위 수여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젊은 세대들의 학문적 문화적 소통과 새로운 학지생산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시아문화연구과정 설치에 있어서 국내외 수요를 조사한 결과, 국경을 넘어 횡단하는 문화현실에서 국민국가 단위를 넘는 관계적 문화연구 교육의 필요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 연구소가 개설할 아시아 문화연구 과정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3. 학술교류협정(MOU)

동아시아 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소 및 연구자들과 학술교류협정(MOU)를 체결하여 공동 연구 프로젝트의 개발과 지식 생산의 상호 지원 및 공유를 도모하고 있다. 이벤트적인 성격을 갖는 학술대회와 달리 교류협정은 체결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연구관심을 조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2008년 39개(명)의 국내외 연구소 및 연구자들과 체결을 맺었는데 이어 2009년에는 17개의 유관기관과 공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였다. 동아시아 연구소는 협정을 체결한 연구소 및 연구자들과 방문연구원 및 교환학자 프로그램을 실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기관들과의 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 정기 학술 토론회

동아시아연구소는 매월 국내외의 문화연구와 아시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전문 인사를 초청하여 정기 학술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또한 연구소 내부적으로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심을 나누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들을 통해 동아시아연구소는 내부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소 외부와의 지식 공유를 도모해가고 있다.

5. 학술연구 활동 및 성과

(1) 연구 활동

동아시아연구소의 연구 수행은 클러스터별로 조직되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대중 문화〉 클러스터, 〈아시아의 사상과 제도〉 클러스터, 〈젠더, 이주, 소수자〉 클러스터 등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클러스터별 학술활동은 연구 주체의 조직, 연구 주제 관련 기획성 및 전문성 확보, 대외 협력의 강화라는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클러스터는 유연한 소규모의 연구 단위로, 연구소 안팎의 다양한 성원들이 학술 기획이나 행사를 통해 공통의 아젠다를 제출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기획해 왔다.

(2) 연구 성과물 출간

동아시아연구소의 학술서 발간 사업은 단행본과 저널 출간으로 나뉜다. 2008년 2월에 출간된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1940~1950년대, 아시아 문화연구 총서 1』은 아시아 역내 문화교통의 흐름을 이론적·현장적으로 포착해 온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의 2년여간에 걸친 연구의 성과물이다. 2009년 8월에는 그 후속작업의 결과물로서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1960~1970년대』를 간행했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학자들 간의 지속적인 공동연구와 교류를 통해 아시아에서 냉전이 갖는 의미를 구체적이고 풍부한 현실과정 속에서 치밀하게 다루었다.

이와 더불어 2009년에는 『아시아 문화연구 총서』라는 이름으로 2010년에 발간예정인 두 권의 단행본을 기획하였다. 그 외, 동아시아연구소 문화학술 정론지 『시선들 *The Lines:Asian Perspectives*』 역시 2010년 4월 간행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시선들 *The Lines:Asian Perspectives*』의 발간은 아시아 문화연구자들간의 학술적 교류와 함께 문화연구 아카데미즘의 실천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6. 아카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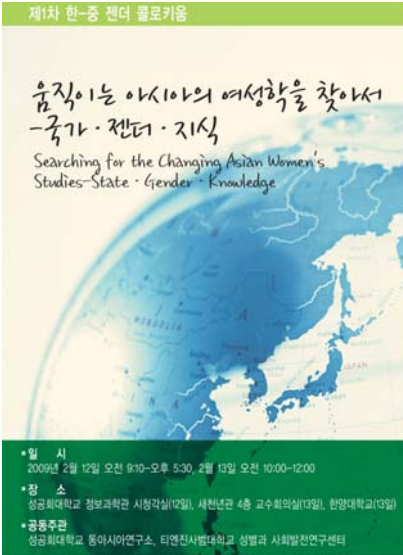
2009년도는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비교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였다. 따라서 2008년도까지 확보한 아시아 사상과 제도 관련 자료들 외에 현실 문화의 생생한 흐름과 이동을 기록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로써 한중일 중심의 사상사, 문화사 관련 자료 외에도 동시대 아시아의 문화산업 관련 연감, 일간지 및 주간지, 화보 및 영상자료, 음반 자료, 기타 인터뷰 및 조사 자료 등을 주요 아카이빙 대상으로 삼아 체계화해 놓았다.

7. 사회화 사업

동아시아연구소는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각종 문화연구의 성과가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그 일환으로 다양한 관련단체 및 기관들과 함께 아시아 문화 행사 및 그 조직활동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문화 활성화 실천 활동을 전개했다. 동아시아 연구소가 나무답움직임 연구소와 함께 공동개최하고 있는 <우동불 공연예술놀이터>는 성공회 대학교가 소재한 구로지역에 문화예술의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공동체의 대안 문화를 창출하려는 취지에서 기획되어 2009년에도 역시 계속되었다. 더불어 아시아 작가들의 영상물을 통해 대중과 함께 아시아의 역사적-현재적 문제들을 사유하는 장을 기획 마련하기도 하였다.

1. 국제 학술대회

(1) 제1차 한-중 젠더 콜로키움



- 주제 : 움직이는 아시아의 여성학을 찾아서-국가, 젠더, 지식
(Searching for the Changing Asian Women's Studies-State·Gender·Knowledge)
- 일시 : 2009년 2월 12일 오전 9:10 - 오후 5:30, 2월 13일 오전 11:00 - 오후 1:00
- 장소 : 성공회대학교 정보과학관 시청각실(12일),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13일), 한양대학교(13일)
- 공동주관 :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티엔진사범대학교 성별과 사회발전 연구소

역동적인 아시아상을 사상·제도·일상이라는 중층적 구조를 통해 재구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한 경로로서, 국민국가 건설과 전지구적 환경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여성의 정체성을 고찰하고자 젠더적 시각에 입각한 국제 학술토론회 제1차 한중 콜로키움을 “움직이는 아시아의 여성학을 찾아서-국가, 젠더, 지식”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였다.

이번 콜로키움은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서양 여성주의를 수용하면서 중국 여성학이 이론적 실천적 탐색을 한 지 30년이 된 점을 중시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국의 전쟁, 결혼, 임시제도개혁과 세대 갈등·젠더문제, 국가정책과 여성해방, 그리고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동아시아연구소와 티엔진사범대학교 성별과 사회발전 연구소는 매년 한국과 중국에

서 젠더 콜로키움을 교대로 진행하면서 아제(亞際)적 학문과 지식 구성을 위해 장기적인 교류를 계속할 예정이다.

[2월 11일]

백원담 소장 두팡친 소장 경향신문 대담

장소: 프린스턴 스퀘어(연세대 동문 근처)

일시: 2월 11일 오후 6:00-8:00

[2월 12일]

• 환영사: 백원담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9:10-9:25)

두팡친(杜芳琴) 티엔진사범대학 성별과 사회발전 연구소 소장(9:25-9:40)

1. 지식구성

사회: 김미란

- 두팡친: 중국대륙의 여성학: 지식의 구축과 전승-30년 회고와 反思(9:40-10:00)
- 최선향: 중국의 아시아 여성학 연구 (10:00-10:20)
- 김경미: 유교와 여성 (10:20-10:40)
- 이안지영: 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국적 '선택'의 조건과 맥락 및 시민권논의 (10:40-11:00)

토론: 11:20- 12:00

- 패널토론: 왕샹셴(王向賢), 허성우, 심영희
- 전체토론: 12:00-12:30(사회: 심영희)

2. 중국의 국가정책과 젠더 관계의 변화

사회: 윤혜영

- 거룬홍(葛倫鴻): 건국 후 여성들의 3차 독신 붐으로부터 보는 젠더 관계의 변화 (1:30-1:50)
- 임우경: 냉전과 여성국민- 항미원조(抗美援朝)시기 「중국부녀」의 애국주의 담론연구 (1:50-2:10)
- 장리(張莉): 국가정책/담론과 여성 "해방"--자오수리(趙樹理)의 1940-1950년대 소설을 통해 읽기(2:10-2:30)
- 김미란: 중국 사회주의시기 마오저통의 입시제도개혁과 '출신가정' 문제-세대갈등과 젠더를 중심으로(2:50-3:10)
- 왕샹셴: "오래된" 것 속에서 새로운 발견 - 부부폭력 속의 남성주의 (3:10-3:30)

토론: 3:30-4:30

- 패널토론: 이해령, 김순진, 장수지
- 전체토론: 4:40-5:30(사회: 박자영)

【2월 13일】

[좌담-1-]

- 주제: 움직이는 아시아의 여성학을 찾아서
- 참석자: 두광친, 김현미, 김경미, 왕상셴, 김미란, 거문홍, 최선향, 임우경
- 일시: 2009. 2월 13일 11:00-13:00
- 장소: 성공회대학교 새천년관 4층 교수회의실

[좌담-2-]

- 주제: 아시아 여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 참석자: 두광친, 심영희(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소장)교수 외.
- 일시: 2009. 2월 13일 15:00-17:00
- 장소: 한양대학교



(2)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생산: 떠오르는 문화주체들

- 주제: 동아시아에서의 문화생산: 떠오르는 문화주체들
- 일시: 2009년 5월 29일(금) 09:25~18:00
- 장소: 성공회대학교 정보과학관 시청각실
- 주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후원: 성공회대학교, 한국학술진흥재단

이 국제 학술회의는 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변동을 트랜스내셔널(Transnational)한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동아시아연구소가 지난 수 년 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개최한 행사이다. 또한 2008년 '동아시아 내에서의 문화조절 담론과 실천'이란 주제로 개최한 국제 학술회의의 후속 연구이기도 하다.

이번 학술회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를 둘러싼 지위변화와 혼돈, 그리고 넘쳐나는 담론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그 동안 문화 연구는 90년대 중반 이후 '한류'로 대별되는 문화현상에 대해 정부 정책, 수용자(Audience)/소비자(Consumer)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왔다. 반면에 문화의 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력관계 및 문화 배치(Allocation)의 문제를 거시적으로 내지는 미시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특히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 온 문화생산-문화산업연구에서 벗어나 문화산업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의 동인(agent)으로 재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는 이런 경제적 관점을 뛰어넘는 새로운 문제제기의 장(場)으로서 기획되었다. 동아시아 문화 생산에 있어 새롭게 시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주체들의 부상과 문화생산과정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문화소비자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생산 양식의 다층적 측면을 보여주고자 했다.



세션	일시	발표주제 및 발표자	토론	
개회	9:25 - 9:30	개회사	사회자	
제1세션 문화경제와 문화민주화 (Cultural Economy and Cultural Democracy)	9:30 - 10:50	문화산업(큰 팔다腕兒), 내셔널리즘, 문화공공성: 21세기 중국의 문화경제와 문화 민주화 문제(The 'Big Shot' Nationalism, Cultural Publicity: Problems of the Cultural Economy and the Cultural Democracy in the 21st Century China) 백원담(동아시아연구소)	강내희(중앙대), 유선영(언론재단), 심광현(한국예술종합학교)	
제2세션 문화생산과 생산의 문화 (Cultural Production and the Culture of Production)	11:00 - 13:00	제1발제 문화상품의 생산조직, 문화노동 연구 (The Production of the Cultural Products and the Cultural Labor) 염찬희(동아시아연구소)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정준영(방송통신대)	
		제2발제 '쿨 재팬'의 그늘 - 일본 문화상품의 생산 노동의 현실(Under the Shadow of 'the Cool Japan' - On the Production Sites of Cultural Products in Japan) 황성빈 黃盛彬 (릿코대)		
		제3발제 경계에 선 중국의 청년작가 (The Chinese Young Writers on Borders) 박자영(협성대)		
		제4발제 한국 웹만화의 특성과 서사전략 (Characteristics and the Narrative Strategy of the Korean Web-Comics) 김강남(성공회대)		
		제1발제 월경(越境)하는 한국드라마 - 가부장제와 젠더를 중심으로(Transbordering Korean Dramas: Focused on the Patriarchy and Gender) 아미사타 영애 山下英愛 (리츠메이칸대)		심두보(성신여대), 소영현(연세대)
		제2발제 동아시아 역내 문화컨텐츠의 번역 연구 (The Translation of the Cultural Contents in the East Asian Region) 이성인(동아시아연구소)		
제3발제 글로벌 도시-지역의 거버넌스를 넘어서: 홍콩과 펄리버 허구 종합개발에 대한 담론과 재현들(Beyond the Governance of Global City-Regions: Discourses and Representations of Hong Kong and Pearl River Delta Integration) 황종이 黃宗儀 (대만국립대)				
제4발제 재현의 정치학- 일본 소설에 나타난 북조선(The Politics of Representation · North Korea in the Japanese Novels) 히라타 유키에 平田紘江 (독협대)				
제1발제 16:30 - 17:30	전체토론			

(3) 한국-타이완 공동 워크숍

- 주제: 총력전하의 문화 사정: 식민지 후기 한국과 타이완 비교연구
- 일시: 2009년 7월 24일~7월 26일
- 장소: 국립 타이완청화대학 인문사회학원
- 주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타이완청화대학 타이완문학연구소
- 주관: 한국학술진흥재단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와 타이완 청화대학 타이완문학 연구소는 지난 2009년 7월 24~7.26일에 걸쳐 <총력전하의 문화 사정: 식민지 후기 한국과 타이완 비교연구>라는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학술행사는 일본에 의한 식민화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의 역사적 상황을 검토하고 (포스트)콜로니얼리티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사유하고 성찰한다는 의도하에 기획되었다. 한국에서는 차승기, 김예림, 백문임, 소영현, 김항 등 근현대 문학, 영화, 사상사 연구자들이 참여했고 타이완에서는 류슈친, 왕위첸, 천웨이츠, 스완순 등이 그리고 일본의 타이완 영화 연구자 미사와 마미에가 참여했다. 워크숍 첫날은 5명의 한국 연구자들이 중일전쟁기~태평양전쟁기에 이르는 시기 '조선과 조선인'의 정체성 정치 및 그 이념적 모색, 그리고 젠더적 차이 나아가 제국의 생명통치기술과 피식민자의 욕망정치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둘째날에는 타이완 연구자들의 집중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는데 타이완의 '지방문화' 론, 타이완인의 정체성과 자기-정체화 문제 그리고 태평양전쟁과 연동하여 나타난 세계사 인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워크숍 중간에는 1940년대에 제작된 한국과 타이완의 전시 프로파간다 영화들을 상영하여 총력전하의 양국의 문화, 이념, 감각 등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다. 역사적 체험의 유사성 못지않게 그 차이의 복잡성 역시 확인하게 된 이번 워크숍은 타이완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이 워크숍의 성과물은 2010년에 한국과 타이완에서 모두 단행본으로 출간될 계획이다. 한국에서는 2010년 상반기에 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국제 워크숍 전체일정

2009년 7월 24일 (금)		
時間	내용	장소
15:00~17:00	타이완 팀 내부 회의	A309
17:00~18:00	한국팀 도착	청화회관
18:00~20:00	학자 소개 및 만찬	
20:00~	휴식	

2009년 7월 25일 (土) : 清華大學 人社院 C310R			
時間	순서	발표자	장소
08:40~09:00			학회 입장
09:00~09:15	개회사 및 학자 소개		김예림 교수(성공회대), 류수친(柳書琴) 교수(청화대학)
09:15~10:00	제1장	김예림 교수	전쟁 스펙터클과 전쟁 실감의 동력학: 중일전쟁기 제국의 대륙통치와 생명정치 혹은 조선·조선인의 배치
10:00~10:45	제2장	김항 교수	'우리-내-존재 In-dem-Wir-sein' 라는 철학적 전회 : 박종홍과 하이데거
10:45~11:00			중간 휴식 20 분
11:00~11:45	제3장	백문임 교수	전쟁과 멜로드라마 : 일제 말기 선전 극영화의 조선 여성들
11:45~13:40			오찬+한국 1930년대 말기 영화 감상 (정중화-한국영성자료원)
13:50~14:35	제4장	소영현 교수	전시체제의 욕망정치
14:35~15:20	제5장	차승기 교수	흔들리는 제국, 탈식민의 문화정치학: 皇民化의 테크놀로지와 그 역설
15:20~15:40			티 타임 (영화상영 : 《鏡의海平線》)
15:40~16:25	제6장	류수친 교수	식민도시, 문예창작, 그리고 지방지식층: 총력전 이전 타이베이(台北)와 허얼뵈(哈爾濱)의 비교
16:25~17:10	제7장	왕휘전 교수	전전(戰前)시기 타이완 지식인의 개인적 독서사
18:00~20:00			청화대 만찬 : 회의 주관단체 초청 전체 학자 만찬

2009년 7월 26일 (日) : 清華大學 人社院 C310R			
時間	순서	발표자	장소
08:40~ 09:00			학회 입장
09:00~ 09:45	제8장	스원순 교수	「타이완 색」의 발현과 구원 - 전(戰)시 포대회(布袋戲) 개조와 타이완 지식인의 「자비문화」형성
09:45~ 10:30	제9장	미사와 미미에 교수	망각된 '항전' 영화감독 허페이광:어느 식민지기 타이완 출신자가 상상한 (우리)
10:30~10:45			중간 휴식 15분
10:45~11:30	제10장	천웨이즈 교수	War and the Spatialization of Historical Consciousness : A Taiwanese intellectual's experience with the World War Two
11:30~13:00			오찬+타이완 영화 상영 (1940년대 기록영화 《南進台灣》)
13:00~15:00	라운드 회의	전체 학자	주제1 : 식민지 비교연구사의 지향과 방법론 주제2 : 한국과 타이완의 탈식민주의
15:00~15:20	회의 보고 및 출판 준비	사회:김예림, 차승기, 류수친, 왕휘전	전체 학자 공동 참여
15:30~17:30			타이완 해협, 18 km 해안선 오후 산책
18:20~20:00			폐막식 및 만찬 : 한국측 학자들의 초청

(4) SPICES 2009

- 주제: Agency, Activism, and Alternatives
 - 일시: 2009년 11월 13일(금) 8:00~18:00, 14일(토) 8:00 ~ 20:00 총2인, 준비기간 8개월
 - 장소: 성공회대학교 7417, 770, 피츠버그홀, 바비엡 교육 3, 4, 5관
 - 주최: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 주관
 - Faculty of Communication Arts, Chulalongkorn University, Thailand
 - Faculty of Communication Arts, Bangkok University, Thailand
 - Centre for Policy Research and International Studies (GenPRIS), University Sains Malaysia, Malaysia
 - Department of English,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Hong Kong
-

SPICES는 한국(서울), 홍콩, 태국(방콕), 말레이시아(페낭)에 소재한 네 학술기관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잇는 비판적인 학자들의 학술 행사다. 2006년 방콕 출라롱콘대학교에서 첫 행사를 가진 이후 2007년 홍콩성시대학교, 2008년 페낭 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에서 각각 행사를 가진 데 이어 이어 2009년 11월 네 번째 대회를 성공회대학교에서 개최한 것이다.

이번 대회는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타이완 등에서 온 20여명의 외국인 발표자들과 한국인 발표자를 포함하여 4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990년대 말 이후 아시아에 찾아 온 경제위기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 '위기의 주범은 신자유주의'라는 상투적인 비판을 넘어서서, 아시아 각국이 위기를 거치면서 어떤 새로운 주체와 행위자들이 출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이번 대회의 주요 목표였다. 이처럼 동시대의 문제에 천착함과 동시에, 역사적 문제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대안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안을 방해하는 행위자들의 문제 역시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를 위하여 우본라트 시리우바삭(태국 출라롱콘대학교, 미디어연구), 타이완의 황종이(국립 타이완대학교, 문화지리학), 마휴딘 아마드(말레이시아과학대학교, 영화연구), 스티븐 후(홍콩침례대학교, 문화연구)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 및 각지에서 온 비판적 문화연구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서는 SPICES의 형식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동·협동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자는 안건이 논의되었고, 차기 대회를 2011년 방콕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 국제 워크숍 전체일정

11월 13일 (금)

Registration

9:00~10:30
10:30
10:30~ 11:00

Welcoming Speech & Keynote Speech

	New Millenium hall 7706	New Millenium hall 7417
	<p>Panel 1 Chair: Dongjoo Yoo</p> <p>Emerging New Subjectivities and Agencies (I)</p> <p>Politics of sameness or difference? claims and strategies... <i>Melody Lu</i></p> <p>Memory of migration and repatriation after liberation... <i>Yerim Kim</i></p> <p>Reararticulating the public: lessons from the public housing ... <i>Rebecca Kim</i></p>	<p>Panel 2 Chair: Changnam Kim</p> <p>Alternative Forms of Cultural Production and Representation (I)</p> <p>The concept of brand archetypes <i>Arishai Akraudom</i></p> <p>Rethinking animation: artistic expression, technology... <i>Khong Kok Wai</i></p> <p>Cartooning gender, representing women's desire <i>Jaeyeon Ahn</i></p>
11:00~12:30		
	<p>Panel 3 Chair: Kyungtae Park</p> <p>Emerging New Subjectivities and Agencies (II)</p> <p>Globalizing the ethical consumers: campaigning for the... <i>Eunhui Eom</i></p> <p>"Rural areas" in cities: the research of migrant... <i>Wang Yujuan</i></p> <p>2008 Chotbui protest and people's media activism in S.Korea <i>Dongwon Jo</i></p>	<p>Panel 4 Chair: Sunyoung Yoo</p> <p>The Politics of Memory and History and (Post)Colonial Criticism (I)</p> <p>Korean's experience of war and Asian imagination during ... <i>Miran Kim</i></p> <p>Prosper thy neighbor? The crooked bridge in ... <i>Ng Eng Kiat</i></p> <p>Kimi and Samli: transmission of historical memory... <i>Seungki Cha</i></p>
13:30~15:00		
	<p>Panel 5 Chair: Ubonrat Siriyuvasak</p> <p>Movie session</p> <p>-Suckseed (Thailand) <i>Siwawut Sewatanon</i></p> <p>-Gadoh (Malaysia) <i>Mahyuddin Ahmad</i></p>	<p>Panel 6 Chair: Eunhong Park</p> <p>The Politics of Memory and History and (Post)Colonial Criticism (II)</p> <p>The image of the U.S and formulation of the Cold War Culture in East Asia <i>Woogyung Im</i></p>
15:30~17:00		

11월 14일 (토)

8:00~9:00		Registration	
Vabien 3rd floor			
<p>Panel 7 Chair: Melody Lu Critical Language and Gender Studies in Asian Contexts Sexuality, love and marriage of Chinese women in Post-Mao Era <i>Usama Mahapasuthanon</i> Exploring gender issues in Thai contemporary musical theatre... <i>Vanichtrakul, Arthni</i> A study on women's movement around the time of ... <i>Hayoung Lee</i></p>			
9:00~10:30			
<p>Panel 9 Chair: Stephen Yiu-wai Chu Cultural Industries, Cultural Policy and Publicness of Culture Between desire and hope, Ethnic relations and the notion... <i>Mahyuddin Ahmad</i> Brand communication process of Thai political parties... <i>Patamaporn Netinart</i></p>			
<p>Panel 10 Chair: Wondam Paik Alternative Forms of Cultural Production and Representation (II) Understanding Bangkok university's identity under... <i>Chulima Kessadayurat</i> Biopolitics and the representation of foreign domestic... <i>Tsung-yi Michelle Huang</i> Moral kiosks: cultural practices and the construction of 'morality' ... <i>Mohd Azmyl Bin Md Yusof</i></p>			
11:00~12:30			
<p>Panel 11 Chair: Joel David Border-crossing, Transculturation and Cultural Hybrids/Nomads Festival and cultural strategies: displaced Shan in... <i>Omsin Boonlert</i> Ethnic youth and adaptation in Chiang Mai city <i>Juraiporn Jitpitak</i> The indeterminacy and possibilities of everyday life... <i>Cheehyung Kim</i> Video piracy as an instance of neocolonial resistance... <i>Joel David</i></p>			
<p>Panel 12 Chair: Tsung-yi Michelle Huang Alternative Forms of Cultural Production and Representation (III) Fu@Kin music: "Free" Hong Kong popular songs <i>Stephen Yiu-wai Chu</i> The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s between Lao and ... <i>Lammai lamsa-art</i> South Korean cultural industries as agents of regionalization? ... <i>Hyunjoon Shin</i></p>			
13:30~15:00			
15:30~17:30	General meeting Vabien 3rd floor		
18:00 ~ 20:00	Reception Dinner Vabien 3rd floor		

2. 대학원 개설

(1) 대학원 「아시아문화연구 과정」개설

아시아문화연구전공 과정은 대안적 지역문화정치학의 주체적 정립과 구성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지역적으로(Inter-Asia, 亞際) 생산해나가는 학제간 문화연구교육의 통로이다. 이 과정은 차세대 문화인재들이 대안적 세계화와 지역화의 전망을 가지고 다문화, 다인종, 계급, 젠더 간의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공존을 모색하는 이론적인 실천으로서 문화연구와 지역연대 활동을 통해 아시아의 지식·문화 생산을 선도해낼 수 있는 이론적 실천적 역량을 배양해 내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10년 3월 개강을 목표로 준비 진행중이다.

아시아문화연구과정 운영의 특징은 아시아 10개국 23개 대학의 학과 및 연구기관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식·문화의 공동생산방식과 문화운동의 확산에 필수적인 공동 협력, 인적 및 지식 교류, 비교연구 및 아시아 현장연구를 지원하고 활성화해나가는 데 있다.

전공과정특징

주요 연구교육과정은 국민국가를 넘어 아시아라는 지역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의 사회적 생산과 트랜스내셔널한 문화구성의 역사적 현실적 과정을 이해하고, 인터아시아적인 아시아문화정체성 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들에 입각하여 다원적이고 평등한 문화아시아의 역사적 현실적 형성경로를 찾아 나가는 문화정치학적 입장을 지닌다.

1. 문화의 산업화, 정치의 문화화, 경제의 문화화, 문화국가의 정립 등 문화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이론·정책·기획·운동·교육을 교과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이를 위해 팀칭, 교환수업, 비교연구, 현장연구를 제도화·활성화한다.
2. 아시아 9개국 14개 도시 23개 대학의 문화연구 기관과 학문 콘소시엄(Academic Consortium)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연구협력, 학점 교환, 교수진 공유, 교환학생 제도를 운영한다.
3. 콘소시엄에 참여한 국외 22개 대학과 '석사 및 박사 공동학위 프로그램(Inter Asia MA·PH D Joint Degree Program)'을 추진, '인터아시아문화연구'의 핵심 인재로 양성할 예정이다.
4. 매년 "인터아시아 여름학교(Annual Inter Asia Cultural Studies Summer School)"를 2주간 개설, 인터아시아 문화연구 콘소시엄에 참여한 아시아의 공동교수진이 인터아시아문화연구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강의를 시행하며, 이는 이수학점으로 산정된다.
5. 일반대학원 문학석사(Master of Arts) 학위를 수여한다.

(2) 콘소시엄 진행과정

콘소시엄은 이러한 '문화로서 아시아'의 학술적 구상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HK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요소이다. 콘소시엄은 아시아 10개국 24개 문화연구 및 문화 관련 대학, 학과, 연구소가 참여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다국적 학술 콘소시엄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다양다기한 문화적 이슈와 현상, 초국적 갈등을 공동으로 그리고 장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인 연대와 실천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2009년 6월 동경에서 10개국 23개 학술기관들 간에 1차로 콘소시엄구성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창립일정은 2010년 7월 3-4일 양일간 성공회대에서 성공회대와 동아시아 연구소가 주관하는 25개 기관간 콘소시엄 협약체결식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래 준비팀의 주도하에 다음과 같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콘소시엄 참여 기관목록은 다음과 같다.

콘소시엄 TF : Kuan-Hsing Chen(Taiwan), Ashish Rajadhyaksha(India), Stephen Chan(Hong Kong), Melani Budiarta(Indonesia), Kim Soyoun(Korea), Yoo Sun-young(Korea), Paik Wondam(SunKonghoe Univ.) and Cho Hee yeon(SungKonghoe Univ.)

1차 타이페이TF회의 : 2006.1.12, Taipei, Taiwan

2차 신추TF회의 : 2009. 4, Hsinchi, Taiwan

3차 도쿄TF회의 : 2009.7.6, Tokyo, Japan

4차 서울TF회의 : 2009.9.16-17, Seoul, Korea

콘소시엄 참여대학

아시아문화학과의 공동학위제 MOU 체결 대학 학과 및 연구기관(25)

- Center for Asia-Pacific/Cultural Studies, Chiao Tung University, Hsinchu
- Center for Asia-Pacific/Cultural Studies, Tsing-Hua University, Hsinchu
- Center for Comparative Literature,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 Beijing
- Center for Film and Cultural Studies, Peking University, Beijing
- Center for the Study of Culture and Society, Bangalore
- Cinema Studies Department,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 Cultural Studies in Asia, PhD Program,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 Cultural Studies Program in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 University of Tokyo, Tokyo
-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Melbourne

- Democracy and Social Movement Institute,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Tsing-Hua University, Hsinchu
- Department of English, Central University, Chung-li
- Department of English and Humanities, BRAC University, Dhaka
- Department of Gender and Cultural Studies, University of Sydney
- Department of Literary Studies, Faculty of Humanities, University of Indonesia, Jakarta
- Graduate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and Cultural Studies, Chiao Tung University, Hsinchu
-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SungKongHoe University, Seoul
- Institute of Korea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 Kwan Fong 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 Program in Cultural Studies, Shanghai University, Shanghai
- Ritsumeikan University, Kyoto
- Institute for Contemporary Culture, ChungAng University, Seoul(New)
-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ChungAng University, Seoul(New)

3. 학술교류협정(MOU) 및 방문학자

(1) MOU

2년차(2008.11~2009.12) 신규 체결대상 17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까지 체결된 MOU 대상은 신규를 포함하여 도합 57개 기관이다.

2차년도 신규체결 협력대상(기관, 프로그램, 개인포함)			
순번	협력대상	체결일자	대표자 및 소속기관
1	평화박물관	2009. 3. 2	이해동
2	Center for Asia-Pacific/Cultural Studies	2009. 7. 6	Chiao Tung University, Taiwan
3	Center for Film and Cultural Studies	2009. 7. 6	Peiking University, China
4	Center for the Study of Culture and Society	2009. 7. 6	Bangalore, India
5	Cultural Studies Department	2009. 7. 6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Korea
6	Cultural Studies in Asia, PhD program	2009. 7. 6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7	Cultural Studies Program in Inter-Faculty Initiative in Information Studies	2009. 7. 6	University of Tokyo, Japan
8	Department of Chinese Literature	2009. 7. 6	Tsing-Hua University, Taiwan
9	Department of English	2009. 7. 6	Central University, Taiwan
10	Department of English and Humanities	2009. 7. 6	BRAC University, Bangladesh
11	Department of Literature Studies	2009. 7. 6	University of Indonesia, Indonesia
12	Graduate Program in Culture and Gender Studies	2009. 7. 6	Yonsei University, Korea
13	Institute of Korean Studies	2009. 7. 6	Yonsei University, Korea
14	Kwan Fong 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2009. 7. 6	Lingnan University, Hong Kong
15	Program in Cultural Studies	2009. 7. 6	Shanghai University, China
16	Ritsumeikan University	2009. 7. 7	Ritsumeikan University
17	한국영상자료원	2009. 7. 17	조선희

(2) 방문학자

2차년도에는 아래 5분의 해외 각지로부터 전문연구자를 방문학자로 초빙하여 공동연구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름	근무기간	소속	연구분야
Tammy Ko Robinson	2009.02.01~ 2009.07.30	(Assistant Professor) Interdisciplinary Studies, San Francisco Art Institute	media & communication
Michael Fuhr	2009.02.01~ 2009.09.24	(Doctoral Student) Ethnomusicology At the University of Heidelberg	Ethnomusicology, Korea popular music
정선	2009.06.03~ 2009.08.31	(Research Fellow) Victoria University - St. Albans Campus	미디어, 문화
조경희	2009.06.01~ 2010.02.28	일본동경외대 인문과학연구과 박사수료, 한신대 강사	식민지 조선 한일관계
Melody Lu	2009.09.15~ 2009.12.31	(Research Fellow) Asia Reseach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Anthropology/Development Sociology and Chinese Studies

4. 정기 학술 토론회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는 전통적인 학제적 인식틀과 프로그램을 넘어서는 새로운 아시아 연구의 방법과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 아시아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한 역사적이고 당대적인 연구를 전개해 온 국내외의 뛰어난 학자들을 초빙하여 평균 월 1회 이상의 학술 토론회(구 집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번 1년간은 ① 정치적, 경제적 세계화가 아시아에 가져온 파장과 그에 따른 변화, ② 근현대 아시아 역사와 사상에 있어서의 쟁점들, ③ 변화된 산업적 조건 속에서의 아시아 대중문화의 문제 등을 토픽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동아시아연구소의 공동연구원을 중심으로 학술토론회를 조직했다. 연구의 전문성 제고와 지식 공유를 위해 학술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는 것은 물론, 향후 1년간은 현재까지 축적된 동아시아연구소 내부 연구인력들의 개별연구 및 공동연구의 성과를 발표하고 점검하는 자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2009년 12월 현재까지 진행된 학술토론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날짜	발표자	주제	장소
1	08. 11. 21	권학태	일본의 시민사회론과 시민사회	승연관 2층 회의실
2	08. 11. 28	Joel David	Philippine culture Industry, with Emphasis on Our Cinema	승연관 3층 회의실
3	08. 12. 12	Anwar Shaikh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자유무역이론" (Globalization and the Theory of Free Trade)	새천년관 7417
4	08. 12. 18	왕휘	탈정치화된 정치와 20세기말의 중국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5	08. 12. 19	왕휘	중국과 그 근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중국 근대사상의 흥기에 대하여	새천년관 7417
6	09. 1. 9.	이남주	중국 근현대사에서의 자유주의의 변천	승연관 2층 회의실
7	09. 3. 6.	Michael Fuhr	1. "Sounding out the Wave" ? National Dreams and Global Streams of Korean Popular Music	승연관 2층 회의실
		Tammy Ko Robinson	2. "The Emergence of Cultural and Visual Industries in South Korea and Struggles for Communication Rights and Stewardship of Biopower Evidenced in "Public Interest"	
8	09. 4. 24.	박은홍	반지구화 운동으로서의 타이공동체주의 그 보수적 변형	새천년관 7417
9	09. 5. 28.	Martin Hart-Landsberg	세계경제 위기와 중국경제의 진로	승연관 2층 회의실
10	09. 6. 9	Hughes, Theodore Q.	한국과 미국의 낭전문화: 영화와 미술 속의 학술 장면	승연관 2층 회의실
11	09. 6. 29.	Cheon Gwang Sing(陳光興)	세계화와 탈제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동아시아연구소
12	09. 8. 6	박노자(Vladimir Tikhonov)	폭력적 불교: 조선불교도와 태평양 전쟁	새천년관 7417
13	09. 8. 21	이정엽	Contesting the Digital Economy and Culture	승연관 2층 회의실
14		정선	K-pop beyond Asia	
15	09. 9. 30	이토 마코토	서브-프라이 경제위기의 사회적 비용과 역사적 중요성	승연관 2층 회의실
16	09. 10. 22	추이병환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는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정보과학관 시청각실
17	09. 11. 27	조경희	한국사회의 재일조선인 인식과 전더	승연관 2층 회의실



5. 학술연구 활동 및 성과

(1) 연구활동

동아시아연구소의 연구인력들이 지난 2008년 11월~2009년 12월에 다음과 같은 연구업적을 산출하였으며 연구소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개인연구업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아시아의 사상들'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비교연구

한국의 초기 내셔널리즘 연구,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다루면서 '제국'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 군사문화와 국가주의를 분석한 성과들이 20세기초부터 식민지 시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의 5·4시기 '민족' 개념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내셔널리즘에 대한 연구, 1960~70년대 비동맹국들에서의 민족·민중 개념 형성연구, 문화대혁명 시기 공사(公私) 개념의 재구성 양상에 대한 분석, 패전 후 일본에서 생산된 '유일 피폭국' 담론을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검토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저서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은 1930년대 후반 이후 식민지 조선의 문단 및 평론계에서 이루어졌던 '전통' 논의 및 '반서양=반근대' 논의를 식민지/제국을 가로질러 부단히 변동하고 있던 담론장 속에서 분석하였다.

2) 아시아 지역 통합의 정치경제적 구상과 노동관계에 대한 연구

당대 중국사회의 계급문제, 태국에서 국왕, 군부, 자본 사이의 상호 길항관계에 대한 연구, 필리핀 광산업의 제도적 변화에 관한 연구와 반(反)광산 운동이 정치생태학적 관점에서 갖는 의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공저 『이중과제론: 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하에서 한국식 사회운동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제시하고자 했다.

3) 아시아에서의 이주와 정착 그리고 계급/젠더/소수자 연구

재일조선인 3·4세대의 국경넘기(越境)를 '주체 위치'와 '문화자본(cultural capital)'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 한국전쟁 시기 중국에서 '애국'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을 '여성의 국민화'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했다. 저서 『현대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는 20세기 중국 여성의 삶을 '제도화'와 일상 속에서의 '문화적 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4) 아시아의 지(知)의 체계와 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서 아동 및 청소년의 훈육 담론에 대한 연구, 최근 제3세계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정의'적 접근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교육적 과제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동아시아연구소의 연구자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출간한 저서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2』는 아시아에서 '전통'이라는 개념 및 지(知)의 대상이 광역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직조되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5) 아시아의 대중연예, 문화산업 그리고 여가에 대한 연구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문화정책과 방송의 정치적 자율성 문제, 당대 중국의 대중문화와 문화민주화의 양상 분석, 1960~70년대 타이의 저항음악과 청년문화 형성과정, 냉전 초기 한국과 타이완에서 미국 대중문화의 번역·수용과정, 홍콩의 영화배우 성룡의 이미지가 냉전시대 동아시아에서 통(通)지역적으로 소비되는 현상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저서 『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은 '자유 라이선스' 개념을 참고하여, 웹 2.0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저작권 개념에 대해 모색하였다. 저서 『왜 대안공간을 묻는가』는 '대안공간'의 위축에 대하여 원인고찰과 함께 대안서사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공저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유행한 대중문화 속에 홍콩, 타이완, 동남아시아 화교권, 일본,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의 대중문화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고찰했다.

▶ 발표논문 목록

연번	발표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저자수	학술지구분
	성명	참여구분					
1	백원담	소장	아시아 내셔널리즘과 5.4 5.4 운동에서 '문화'와 '민족' 문제의 재인식	중국현대문학	2008/12	1	학인 등재지
2	백원담	소장	아시아에서 1960~70년대 비동맹/제3세계운동과 민족·민중 개념의 창신	중국현대문학	2009/06	1	학인 등재지
3	백원담	소장	문화산업, 내셔널리즘, 문화공공성21세기 중국의 문화 경제와 문화민주화 문제	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08	1	학인 등재후보지
4	권현태	일반연구원	'배제의 정치성'과 히로시마 피폭의 '재기억'-고노 후미요의 『저녁뚝의 거리 사쿠라의 나라』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2009/가을호	1	기타국내학술지
5	권현태	일반연구원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황해문화	2009/가을호	1	기타국내학술지
6	최영목	일반연구원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방향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05	2	학인 등재지
7	장영석	일반연구원	농민공, 중국 계급문제의 지구적 맥락	황해문화	2008/겨울호	1	기타국내학술지
8	박은홍	일반연구원	위기의 타이 민주주의가 남아야 할 국왕,군부,자본	황해문화	2009/02	1	기타국내학술지
9	박노자	일반연구원	Knowledge is Strength Social Darwinism in Pre-colonial Education in Korea(1895-1910)	Bochumer Jahrbuch zur Ostasienforschung	2008/10	1	기타 국제저널
10	박노자	일반연구원	군사주의, 국가주의를 극복해 나가는 길	국제고려학	2008/12	1	기타국내학술지
11	이남주	일반연구원	對韓經濟開發政策의 反思	臺灣社會研究	2009/06	1	기타 국제저널
12	신현준	HK 교수	1960~1970년대 타이의 저항음악과 청년문화의 형성과 발전 : 삶을 위한 노래(phleng phua chwit)를 중심으로	대중음악	2009/05	2	기타 국내학술지
13	신현준	HK 교수	Trenslation of 'America' during the Early Cold War Period : a Comparative Study on the History of Popular Music in South Korea and Taiwan	Inter-Asia Cultural Studies	2009/05	1	SSCI

14	김예림	HK 교수	이동하는 국적, 율경하는 주제, 경계적 문화지본	상허학보	2009/02	1	학진 등재지
15	김예림	HK 교수	전쟁스펙터클과 전쟁실감의 동력학	동방학지	2009/09	1	학진 등재지
16	김예림	HK 교수	문화번역 장소로서의 칩타: 노동과 소비 혹은 현실과 판타지의 역학	언론과사회	2009/12	1	학진 등재지
17	김미란	HK 교수	미오제동의 임시제도개혁과 출신이정문제-세대갈등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2009/03	1	학진 등재지
18	김미란	HK 교수	판사오토론(1980)에 나타난 문화대혁명의 극복서사-공사公私 개념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009/08	1	학진 등재지
19	차승기	HK 연구교수	흔들리는 제국, 탈식민의 문화정치학: 황민화의 테크놀로지와의 역설	동방학지	2009/06	1	학진 등재지
20	차승기	HK 연구교수	기미와 삼일해방직후 역사적 기억의 전승	한국현대문학	2009/08	1	학진 등재지
21	엄은희	HK 연구교수	반(反)광산 지역운동과 다중 스케일적 연대 필리핀 리푸라푸 프로젝트의 정치생태학	공간과 사회	2008/12	1	학진 등재후보지 1
22	엄은희	HK 연구교수	제3세계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정의적 접근과 지리교육의 과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009/04	1	학진 등재지
23	오영숙	HK 연구교수	1960년대 첩보연영화와 반공주의	대중서사연구	2009/12	1	학진 등재지
24	오영숙	HK 연구교수	아빠와 소녀 70년대 한국영화의 표상연구	영화연구	2009/12	1	학진 등재지
25	홍지순	HK 연구교수	Trans-regional Circulation of Jackie Chan's Image in the Late Cold War Year's East Asia Stereotyping and the Translation of Subjectivity:	Asian Cinema	2009/Spring /Summer	1	기타 국제학술지
26	홍지순	HK 연구교수	The Image of 'The Little Girl' in Ling Shuhua's Chinese and English Translations	Translation Quarterly	2009/ 여름	1	기타 국제학술지
27	임우경	HK 연구교수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애국공약운동과 여성의 국민 되기	중국현대문학	2009/04	1	학진 등재지

▶ 발표저서 목록

연번	발표자		논문제목	학술지명	게재일	저자수	학술지구분
	성명	참여구분					
1	백원담	소장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2	한실문화	2009/08	13	아시아 문화연구총서
2	최영목	일반연구원	미디어콘텐츠와 저작권	논형출판사	2009/08	1	
3	차승기	HK 연구교수	반근대적 상상력의 임계들: 식민지 말기 조선 담론장에서 전통, 세계, 주체	푸른역사	2009/5	1	
4	차승기	HK 연구교수	일제하 한국사회의 전통과 근대역사	해안	2009/02	6	
6	임우경	HK 연구교수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출판사	2009/03	24	
7	이남주	일반연구원	이중과제론-근대적응과 근대극복의 이중과제	창비	2009/04	9	이남주 엮음
8	김미란	HK 연구교수	현대중국여성의 삶을 찾아서-국가·젠더·문화	소형출판사	2009/07	1	
9	심보선	HK 연구교수	왜 대안공간을 묻는가: 대안공간의 과거와 한국미술의 미래	미디어어스	2008/10	4	

(2) 연구성과물 출간

동아시아 연구소 학술서 편찬의 트랙은 크게 둘로 나뉜다.

1) 첫 번째 트랙은 <아시아 문화연구 총서> 시리즈로, 아시아 문화관련 학술서를 단행본 형태로 출간한다. 2009년에는 그 두 번째 기획인 『냉전아시아의 문화풍경2:1960~1970년대』가 발간되었다. 이 책은 아시아 냉전문화의 국민국가적 표현 및 그 구조를 사상, 제도, 일상이라는 복합적 층위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그리고 2009년에는 이 단행본 시리즈의 세 번째 네 번째 테마를 기획하였는데 야마다 마사히코의 『가족의 구조조정』 그리고 연구소내 연구분과인 한국-타이완 문화비교연구회의 『전쟁이라는 '문턱'』이 그것이다. 전자의 경우 일본 근현대사와 여성 문제를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역서로, 2010년 초에 그 번역본이 출간될 예정이다. 후자의 경우 식민지 말기 총력전 체제 하의 타이완과 일본의 문화구조를 비교연구한 것으로, 한국과 타이완 학자들의 공동작업이라 할 수 있다. 단행본 시리즈는 기획을 통해 계속될 계획으로, 해외 학술서 번역, 연구서 등등을 모두 포괄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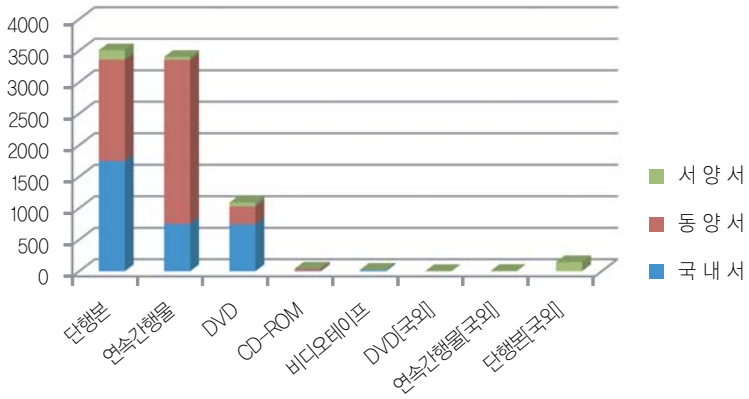
2) 두 번째 트랙은 학술지 『시선들, *The Lines: Asian Perspectives*』이다. 이 학술지의 집행위와 편집위는 국내외 우수한 아시아 문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널 출간과 관련하여 2009년에 이루어진 작업은 투고된 원고들의 검토 및 구체적인 편제 구상으로, 2010년 4월 발행을 앞둔 실질적인 준비작업을 실행했다. 특집란은 <아시아의 사상과 지(知) 그리고 지(知)의 제도>로 중국, 일본 등의 학자들이 참여하였고 그 외 타이완 학자의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6. 아카이브

동아시아연구소는 그동안 아시아 사상·제도·일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힘써왔다. 그 성과물로서 후쿠자와 유키치(福諭吉),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 강여우웨이(康有为), 루쉰(魯迅) 등과 같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주요사상가들의 저작들을 비롯해, 〈신천지(新天地)〉, 〈만선일보(滿鮮日報)〉, 〈신시대(新時代)〉, 〈아사히 저널(朝日ジャーナル)〉 등의 다양한 신문 잡지 자료는 물론 최근의 영화나 음악과 같은 대중문화 자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귀중한 자료들을 아카이브로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2009년에는 평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자료, 650여건에 달하는 한국 영상자료원 보유 한국 고전영화 및 독립영화 자료, 케포이박스에서 출간한 한국 근현대사 잡지 영인 자료 등을 추가로 구입 비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아카이브 구축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아시아연구소는 아시아 문화(사상·제도·일상) 연구를 위한 다양한 자료의 확충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아시아 문화 지식의 공유 및 사회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2010년 2월 현재 동아시아연구소 아카이브의 자료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서구분	구분	국내서	동양서	서양서	합계
단행본	종수	1017	847	127	1,991
	책수	1750	1609	147	3,506
연속간행물	종수	62	51	10	123
	책수	751	2606	43	3,400
DVD	종수	711	175	54	940
	책수	745	284	59	1,088
CD-ROM	종수	4	17	0	21
	책수	6	34	0	40
비디오테이프	종수	13	0	1	14
	책수	19	0	4	23
DVD[국외]	종수	0	0	1	1
	책수	0	0	2	2
연속간행물[국외]	종수	0	0	3	3
	책수	0	0	4	4
단행본[국외]	종수	0	0	127	127
	책수	0	0	145	145
합 계	종수	1,807	1,080	323	3,220
	책수	3,271	4,533	404	8,208



※ 동아시아연구소 아카이브 자료는 성공회대학교 중앙도서관(library.skhu.ac.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이들 자료는 성공회대학교 내의 구성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열람 가능함

7. 사회화 사업

아시아 문화의 체험은 ‘학술’의 장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연구소가 진행해온 일반인을 위한 대중 강연은 단순히 ‘지식의 보급’이라는 계몽적인 형식을 취하기보다는 일반인들의 문화적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놀이’ 혹은 ‘여가’의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목적의식 하에 2009년에 수행한 사회화 사업은 <우동불>과 <인디다큐 페스티벌 포럼>이다.

(1) 우동불 공연예술 놀이터

<우동불 공연예술 놀이터>는 구로구라는 지역 사회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여성, 어린이의 문화적 복지의 향상을 고민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9년 1월 제4회 대회를 맞이했는데 그 기획 의도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의 시선을 확장하고, 아시아 문화 속에 깃든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는 데 두었다. 특히 공연 기술의 습득과 더불어 인문학적 상상력을 강화하고 탈장르의 공연예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09년 제 4회 대회는 “구로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라는 주제 하에 대만의 남투시 남투현 가화초등학교의 실팽이팀을 초청하여 이들의 공연을 감상하고 상호간에 예술놀이를 가르치고 배우며 문화적으로 상호교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



<프로그램 개요>

- 행사명 : 2009 우동불 공연예술놀이터
- 장 소 : 서울 성공회대학교
- 일 시 : 2009년 1월 12일(월) ~ 1월 16일 (금) 09:30 ~ 16:00
(목/금은 저녁 7시부터 발표회와 대동놀이로 진행)

- 주 최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나무담음직임연구소
- 후 원 : 성공회대학교
- 참가대상 : 구로 지역의 11 ~ 19세 어린이와 청소년 50명, 학부모, 지역주민
- 참가비 : 2만원 (점심식사와 간식, 재료비 포함)
-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 2008년 12월 29일 ~ 2009년 1월 7일 저녁 8시

놀이터 프로그램

놀이터	지기	대상
몸으로 여는 아침	문홍만(당산중 체육 선생님)	참가자 전원
저글링 모듬 놀이터(포이, 버나, 장다리)	각 모듬별로 진행	참가자 전원
탈놀이로 만나는 세상	장소익(연출가/나무담음직임연구소) *장다리 놀이터 연계 프로그램	13세 이상
공동체 인형 만들기	극단 '뛰다'	11세 이상
춤으로 만나는 나	이지현(무용가)	11세 이상
사자춤으로 맛보는 전통 문화	최승집(배우/극단 '현두레')	11세 이상
디아블로로 둘러보는 세상	대만 Houbi 디아블로팀	13세 이상
대만 Houbi의 놀이 공동체 이야기	대만 Houbi 디아블로팀으로부터 듣는 대만의 공동체 문화 이야기 (지역과 교육을 중심으로..)	

(2) 인디다큐페스티벌 포럼

SIDoF 2009 Forum

전형을 넘는 도전: 대만 다큐멘터리의 현재와 가능성

Challenge over the Mode of Documentary:

The Prospect of Contemporary Taiwanese Documentary

동아시아연구소는 인디다큐페스티벌과의 공동주최 하에 '대만 다큐멘터리의 현재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였다. 이번 포럼에는 대만 민족지영화협회 후타이리 감독과 대만정치대 귀리신 교수, 용인대 허욱 교수, 박정숙 감독, 오영숙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김수현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하여, 대만 독립다큐멘터리의 위상과 가능성을 화두 삼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대만 민족지 영화의 발전양상과 그 맥락에 대하여, 그리고 근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대만의 사적 다큐멘터리의 탈정치적 경향과 개인적·센티멘털한 양상에 대하여 세부적이고도 비판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시 : 2009년 3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장소 : 삼일로 창고극장

사회 : 허옥 (인디다큐페스티벌2009 해외 프로그래머, 용인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토론 : 후 타이리 胡台麗 Tai-li Hu (스톤드림 감독, 대만 국제민족지영화제 집행위원장)

귀 리신 郭力昕 Li-Hsin Kuo (미디어 비평가, 대만국립 정치대학교 신방과 교수)

박정숙 (인디다큐페스티벌2009 집행위원장, 영화감독)

오영숙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김수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대만다큐멘터리 상영작 목록 >

- 1) Stone Dream / 2004 / Color / Video / 79 / HU Tai-Li
- 2) Grandmother's Hairpin / 2000 / Video / Color / 90 / HSIAO Chu-Chen
- 3) The Baseball Boys / 2008 / Video / Color / 86 / SHEN Ko-Shang / LIAO Ching- Yao
- 4) Somewhere over the cloud / 2007 / Video / Color / 102 / HSIAO Mei-Ling
- 5) Hard Good Life I / 2003 / Video / Color / 43 / HSU Hui-ju
- 6) An Exposure of Affected Hospital / 2007 / Video / Color / 59 / CHU Hsien-Che
- 7) Let it be / 대만의 <워낭소리>